

사립 중·고교 비리 전면 감사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행정실장 회의 재정지원 축소·학급정원 감축 등 추진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비리·부정이 근절되지 않자 교육청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90개교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실이 적발되는 사립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취소(이사장, 이사장수의 과반이상), 재정지원 축소, 학급정원 감축 등 제재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사문화한 제재방침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일부 사

학이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아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실제 최근 여수 A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빼돌린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해당 학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8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이 행정실장 회의에서 법인 이사회 구성, 적법 운영 여부, 재산회계 분야,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집행 현황 등 비위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감사방침을 전달한 것은 이런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교육청은 재정부문의 경우 공립학교와 같이 연 1회 감사를 벌이고 비위가 드러난 사학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재감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감사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는 등 '돈 줄을 죄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성 회수액과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도를 평가, 재정 지원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6개 고교서 대학 입시설명회

내일 함평고·26일 구례고

대도시와 달리 대학 입시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지역 고교에서 전문기관의 입시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각각 전남지역 6개 고등학교에서 '2011년 학교방문 대입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교협은 11일 함평고를 시작으로 구례고(26일), 화순고(27일), 목포고(31일) 순으로 입시설명회를 연다. EBS는 오는 27일 부영여고와 전남의고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설명회 대상학교는 'EBS 고교

방문 대입설명회'에 신청한 학교 중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가 우선 선정됐다. 설명회는 3학년생을 포함해 고 1·2학년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입상담 교사와 입학사정관 등이 강사로 나서 '2012학년도 대학입시 이해', '입학사정관제 안내',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등을 설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행사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시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교 1, 2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속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고3 수험생 10명 중 8명

"학교·학원 체벌 경험했다"

교육업체 진학사는 최근 전국의 고3 수험생 7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4명(약 82%)이 '학교나 학원에서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밝혔다.

체벌을 당한 심정을 묻는 문항에서는 '더 잘해야겠다고 반성했다'는 답변은 197명(32%)이고 '반항심이 생겼다'와 '모욕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각각 142명(23%)과 85명(14%)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교사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650명(85%)이 '그렇다'고 밝혔고 전체 응답자의 78%는 존경하는 교사의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진학사는 전했다.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437명(57%)이 '수업과 진로지도, 인성교육, 인생의 조언까지'라는 반응을 보였고 더 나아가 '부모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답변도 173명(23%)에 달했다.

/연합뉴스



새끼줄 어떻게 꼬지?

9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집플공예체험학습장에서 열린 어린이 체험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꼬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nas@kwangju.co.kr

오늘 날씨

강풍·풍랑 주의! 흐리고 비(강수확률 80~90%)가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비	19/23℃
목포	흐리고비	18/22℃
여수	흐리고비	18/20℃
나주	흐리고비	19/23℃
완도	흐리고비	19/23℃
구례	흐리고비	19/23℃
해남	흐리고비	19/23℃
장흥	흐리고비	19/23℃
순천	흐리고비	19/23℃
영광	흐리고비	18/22℃
진도	흐리고비	19/23℃
전주	흐리고비	19/23℃
군산	흐리고비	18/22℃
남원	흐리고비	19/23℃
옥산도	흐리고비	14/17℃

지역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4.0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1.5~2.5m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4.0m	보통	경고	낮음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22	17/21	13/24	12/24	11/24	11/24

내일까지 큰 비 온다

광주·전남북 강풍 동반도

석가탄신일인 10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1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0일 기압골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강수확률

80~90%)가 내리겠다"고 9일 예보했다. 10일 새벽과 오전에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이날 낮에 일시적으로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늦게나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까지 예상강우량은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비는 12일 낮부터 점차 개겠으며, 13일부터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체포

수천억대 불법대출 목인 대가 거액 뇌물수수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로 적발된 금융감독원 간부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를 시작으로 금감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장(2급) 이모씨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2009년 3월 실시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검사 과정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이고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은폐한 데다, 고위험의 PF거래를 단순 대출이 아닌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분배받는 투자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간부 보해저축銀 추가 비리 의혹 수사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간부가 추가로 비리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배된 홍모씨가 금감원 부국장급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해저축은행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홍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장모씨와 함께 금감원 검사를 연기하도

록 힘쓰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다. 검찰은 홍씨 등이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모두 30억원의 거액을 받기로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꽃길공원의 야생화

비 온뒤 무지개 처럼 '기쁜소식' 꽃말

(15) 각시붓꽃

각시붓꽃은 약 30cm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는 붓꽃과 식물이다. 잎은 꽃줄기와 길이가 비슷하다가 꽃이 진 다음 더 자라며, 잎 뒷부분 가장자리에 잔톱기가 있다. 꽃은 4~5월에 5~15cm 길이의 꽃줄기 끝에 보라색으로 핀다. 붓꽃의 서양이름인 '아이리스'



(Iris)는 무지개라는 뜻으로 비 개인 뒤에 무지개처럼 '기쁜소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백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제101227-중-20563호 *조감도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 서울우리들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 풍부한 경험의 의료진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